



한세광 포스텍 교수,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 투자 유치

㈜영인프런티어·㈜인텍플러스와 글로벌 공동 연구 추진

기사입력 2019.08.27 14:57:58 | 최종수정 2019.08.27 14:57:58 | 성민규 | smg511@hanmail.net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창업한 ㈜화이바이오메드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영인프런티어, ㈜인텍플러스와 지분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바이오메드는 ㈜인터로조와 공동으로 World Class 300 과제 수행을 통해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화이바이오메드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영인프런티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노바아시아(Xinova Asia)와 스마트 콘택트렌즈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탠포드 의과대학과 당뇨병, 녹내장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텍플러스와 광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의료기기 사업화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인텍플러스는 독자적인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IT 관련 외관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바이오 진단사업을 추진중이다.

한세광 교수는 "투자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 사업화를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smg511@hanmail.net)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